

# 알바니아 김보민 정현선 은수 은혜 선교사 기도편지



< 2022년 6월, 알바니아 집으로 가는 길 >  
 < 아주 오랜 후 어느 날, 이 길이 그리워지겠지 >

## “길(Ruga)”

참 소중한 송현교회 조광성 담임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님,

처음 알바니아에 왔을 때 제일 낯선 것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이 길들이 하루 빨리 익숙해지길 바랬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익숙해졌지만, 또 나중에 이곳을 떠난 뒤에는 이제껏 보았던 이 길들이 그 어느 기억보다 또렷하게 기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 대한 기억은 ‘제 인생의 일부’이기에 고희(古稀)를 넘어 인생을 되짚어볼 때쯤, 마치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할머니처럼 어제를 회상하듯 수십 년 전 기억을 지금 눈앞에 그릴 수 있을만큼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오늘 아니 매일, 아니 마지막 인생의 도착지에 다다랐을 때에 ‘이 길이 맞았구나!’라는 고백이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번 소식지에서는 ‘길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려 합니다.

### “알바니아 이야기”



< 알바니아 국기 옷을 입은 은수와 은혜 >



< 알바니아 하늘길을 가족과 함께 바라보다 >



< 함께 길을 가는 알바니아 한인들 >



< 알바니아 선교세미나 >

## 1. 아직도 가야 할 길

### ① 고향길



< 2019년 11월 27일, 알바니아 행을 준비하며,

내고향 서울 마포 옛 집(공덕동) 길을  
찍어놓았습니다.

어두웠던, 가난의 향을 품게했던 달동네 그 길이,  
아니 제 삶이 밟아왔던, 익숙한 한국의 모든 길이

알바니아에 가면,  
그저 그리울 것 같아서 한 장씩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 그 길들이 더 그립네요.  
“그 길들이”. >

코로나 시기에 알바니아로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3일을 출국 일정으로 준비하던 중, 출발 이틀 전 이유도 모른 채, 항공사에서 보내온 ‘항공편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한 통의 메일(Mail)을 받고, 어안이 병병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랴부랴 항공편을 재예약해서 결국 ‘2020년 8월 7일’ 무섭도록 한가한 인천공항을 뒤로하고, 8월 8일 그토록 고대하던 알바니아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로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바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교사에게는 ‘고향 가는 길’이 더 어려운 듯합니다. 행여 이것이 ‘죄’인지도 모

르겠습니다.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가는 길’을 떠납니다. 2년 만에 가는 고향길이, 그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염려가 앞섭니다. 단 3주의 일정이기에, 병원 방문, 행사 참여, 가족과의 만남을 제하고 나면 누군가를 만날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앞섭니다. 행여 그 일정에 얼굴을 못 뵈어 서운해하시거나 무례하다 여기시진 않을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향 가는 길’을 알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만남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여러 생각들에 고민만 앞섭니다. 미리 용서해주십시오. 그리고, 연락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② 에그나티아 길, 그 길 위에 함께 서다

지난 5월부터 함께하는 교회의 한국 선교사님께서 몇 해 전부터 하시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칸 유럽의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고, 그 길 가운데 모든 영혼들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현지인들을 지도하는 사역입니다. 저도 그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막막한 환경을 보면 답이 없지만, 희미하더라도 길을 보면 희망이 생깁



< 에그나티아 모임 >



니다. 선교사님께 듣는 조언들과 경험들이 마치 ‘에그나티아 길’의 회복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달려올 듯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외에도 이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여러 조언을 따라 단독 사역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선교 사역이 그냥 쌓인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저는 덤으로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음에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도 그러하셨지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관심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아는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갑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인들과 대화 중인 정현선 선교사 >

## 2. 코로나를 뚫고, ‘하늘길’을 열다

코로나를 뚫고 알바니아에 왔는데, 코로나를 넘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2년간 먹을 수 없었던 한국 음식 목록을 가득 채우며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주간의 짧은 일정’에 먹을 것을 기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짝하기도 합니다.

하늘길이 열리니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간 듯합니다. 물론, 치솟는 항공비용 등으로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우리는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막했던 2년을 보낸 저희 가정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 안전하게 **3주간의 일정**을 잘 보내고 **알바니아**로 귀임할 수 있도록, 또 비행기처럼 훨훨 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민.선.수.혜. 우리가 가야 할 길

### ① ‘보민’의 길, 무명하나 행복한 길

우리는 술하게 많은 지식과 정보, 교훈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것들을 잘 섭취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자연스레 체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나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치 그런 삶에 대한 양질의 제 태도를 우습게 보거나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투영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배우고 공부하며 이와 비슷한 선배 사역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마치 당시에는 자신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면, 나중에는 제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방식대로 산 사람은 어느 틈엔가 보이지 않더군요. 저도 다시 ‘겸손’을 붙잡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10, 20대처럼 아직도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저는 아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9-10)

이렇게 산다면, 나중에 웃으며 주님께 가는 마지막 길이 그리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무명하나 웃다 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② ‘현선’의 길, 행복을 전하는 자의 길



< 5월 29일 결혼기념일,  
함께 가는 길이 기쁘다 >

결혼 후, 아내의 길은 항상 ‘제가 선택한 길’을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늘 제 선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며 따라와 준 아내이자 사모 그리고 선교사인 정현선에게 늘 미안하고, **알바니아**에서만 두고 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이실직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이 아내를 보며, “어쩔 정현선 사모님은 얼굴도 그리 예쁘고, 성품도 좋으며, 그렇게 참할 수가 있냐”며, “정말 사모님 중의 사모님”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현선 선교사는 그 칭찬보다 진심으로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이제는 사모, 선교사를 떠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여성으로 ‘더 행복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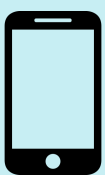
현선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께 큰 상급과 위로를 받는 정현선 선교사의 앞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③ ‘은수’의 길, 행복자가 걷는 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설교자,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 전 아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며 고백한 것이, 어릴 적 게임에 빠져 그렇게 아들 걱정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우였고, 미국 변호사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믿음 안에서 잘 살아주어 정말 고마웠다는 메시지가 아직도 제 마음 한 켠에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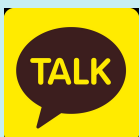
그 장례 예배를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서 ‘남 부

함께 소통해 주세요



김보민 010-4701-0190

정현선 010-9269-7527



김보민 onlylove0529

정현선 jhswe85

facebook

“Bomin Kim” 그리고 “정현선”으로 검색

파송기관

**GMP** (사)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회  
Global Missions Pioneers

**OMC**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후원계좌

하나은행 303-04-0000-4803

(김보민 정현선 전용 가상계좌)

예금주 : GMP김보민

첫 송금 시 한국해외선교회(02.337.7191)로  
김보민, 정현선 선교사 후원임을 알려주세요



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인데, 부모의 눈으로는 자녀의 모든 것이 근심이자 때론 기우가 되곤 합니다.

이제 제 바람은 우리 은수가, 너무 바른 “모범생 은수”가, 바르게만 살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삶 자체를 즐기며, 행복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라가는 우리 은수가 참 행복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④ ‘은혜’의 길, 낙천주의자의 길

은혜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아이의 미래를 상상해보곤 합니다. 은혜는 엄마(정현선 선교사)처럼 낙천적인 친구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평생 우리 은혜가 엄마(정현선 선교사)처럼 낙천적인 삶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때론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결국엔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으로 ‘이곳이’, ‘지금 이’ 바로 ‘천국’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낙천주의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사역의 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 사역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후반기 및 2023년의 사역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장되지 않고, 숨길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한때는 유명을 가진 목회자가 되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나름의 명성과 꽤 풍성한 인맥과 흔치 않은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님께 가는 길 언저리에서 주님이 “그게 최선이었나?”라고 물으신다면 “네”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 무명하지만, 행복한 자로, 가난하지만, 마음만

은 부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022년 하반기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전과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5. 여러분께로 가는 그 길 언저리에서

27년 전 작고하신 할아버지께서 부르셨던 노래의 가사. “인생은 나그네길”. 결국 왔다가 갑니다. 그것이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정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 위에 그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시는 숨은 조력자들, 위로자들, 바로 여러분이 여전히 이 길 위에 함께한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함께 “주님의 길”을 갑시다!

2022년 6월 알바니아에서

행복한 선교사, 김보민 정현선 은수 은혜 드림

#### 함께 기도해주세요

1. 7월 중순부터 예정된 3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짧은 일정 가운데 참여하게 될 행사와 가족들의 병원 치료 및 건강검진과 그 안에서의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2.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김보민 선교사의 스트레스성 질환(통풍, 고혈압, 지방간 등)과 정현선 선교사 건강(고지혈증, 반복되는 어지럼 증세, 서해부 통증 등)과 자녀들의 치아 상태, 김은혜 MK의 시력 회복 등을 위해)
3. 은수, 은혜가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여름과 하반기를 보내고, 어려움 없이 기대하는 대로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학업, 건강, 여름나기를 위해서)